

무주군, 향토문화유산 신규 지정

‘주계고성’·‘도남사(道南祠)’ 등 2건... 역사성 복원·연구사료적 가치 인정

무주군은 무주읍 대치리 ‘주계고성’과 안성면 진도리 ‘도남사(道南祠)’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7일 군수실에서 하남정씨 대종회 등 관리단체에 지정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향토문화유산은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시(군)·도 조례에 기반을 두고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문화유산으로, 무주군은 지난해 3건을 신청·접수 받아 “무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제9조”에 근거해 심의, 최종 2건을 의결했다.

심의회에서 무주군의 역사성을 복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 ‘주계고성’은 구릉성 산지의 능선부와 계곡을 아우르는 둘레 1km 내외의 포곡식 산성으로, 구간별로 적용된 다양한 축성법이 특징이다. 초축 이후 여러 차례의 수·개축 과정을 거쳐 오랜 기간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계고성’이 위치한 무주읍 일원은 남대천을 비롯한 금강의 지류를 따라 형성된 내륙교통로가 한데 모이는 전략상 요충지로 산성 내부에서는 삼국시대 유물을 비롯해 고려~조선시대 유물도 확인되고 있다.

이 ‘주계고성’이 과거 무주 주계현의 치소(治所)로서 조선시대까지 사용되었다는 기록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주계고성’의 성문지는 일제 강점기 신작로 개설로 훼손되며 군부대 및 민가 조성 등으로 인해 성벽 및 부속시설 또한 심하게 훼손됐으나 역사를 품은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구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은 ‘도남사(道南



무주군은 무주읍 대치리 ‘주계고성’과 안성면 진도리 ‘도남사(道南祠)’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7일 군수실에서 하남정씨 대종회 등 관리단체에 지정서를 교부했다.

祠)는 하남정씨 별묘(別廟)에서 시작한 문중 사우로 성리학의 토대를 마련한 태종공(太宗公) 정항(程尙), 명도공(明道公) 정호(程頤), 이천공(伊川公) 정이 삼부자의 영정을 배향하고 있다.

1922년 사우 및 강당을 건립하고 신도비각을 세운 사우 형태로서 ‘도남사’라는 이름을 붙였다. 1984년, 2023년에 대대적인 중수를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었으며 사당 공간과 강당·관리사·세묘가 위치한 강당 공간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다.

사당에 도남사(道南祠)라는 현판이 걸려 있으며 성리학의 토대를 마련한 삼부자의 영정을 모시고 있다. 강당은 팔작지붕으로 도남재

(道南齋) 현판이 걸려 있다. 세묘 정면에는 정씨세묘(程氏世廟)라는 현판이 걸려 있으며, 내부 정간 부분에 1992년에 건립한 하남정씨세묘정비(河南程氏世廟建碑)가 세워져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귀한 유산을 발굴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크다”며 “인적·물적 향토문화유산이 곧 지역의 근간이라는 생각으로 발굴하고 또 후손대에 물려주기 위해 보존에도 진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2건 외에도 금강 벼룻길, 안국사 괘불대, 육영재, 삼공리 월음령계곡 제철유적, 두길교회 등 총 17건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무주=전문성 기자

전주 전통한지 삽입 사회교과서 보급 확대

한국전통문화전당, 올해 익산시·순창군·진안군에 추가 배포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올해 전주 전통한지가 삽입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를 익산시, 순창군, 진안군에 추가 배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당은 지난해 전주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부안군 등 5개 시·군에 보급한 바 있다.

이번에 보급된 전주 전통한지는 김천중, 강갑석, 김인수, 최성일 등 전주한지장 4인이 손수 제작한 전통한지 2700여 장(A4 기준 2판 1700여 장)과 색한지 3000여 장이 학생들의 지역 사회교과서에 삽입됐다.

7일 전당에 따르면 전주 지역 초등학교 1학기 지역 사회교과서 7100부, 임실 300부, 완주 900부, 부안 300부, 남원 680부, 올해 새롭게 추가된 지역인 순창 180부, 익산 2350부, 진안 140부의 보급량에 해당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주 관내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지역 사회교과서에는 삽화로 그려진 전주 지도의 형태로 삽입됐으며, 2학기에는 오려서 쓸 수 있는 색한지가 포함될 예정이다. 또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익산시, 진안군은



편지지 형태로, 완주군과 부안군은 간지 형태로 삽입됐다.

김도영 원장은 “전주 전통한지의 확산을 목표로 올해는 도내 8개 지역에 보급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전주 전통한지 지역 사회교과서 보급을 타 지역으로 확대해 전주 한지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한지 오브제 프로모션 기획전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 활용 공간 연출 ‘가족·물오름·인쇄·푸른달’ 개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따뜻한 봄날을 맞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가족·물오름·인쇄·푸른달’이라는 주제로 한지 오브제 프로모션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전당에 따르면 순우리말인 물오름달(3월), 인쇄달(4월), 푸른달(5월)을 의미하는 이번 기획전은 일사귀, 아지랑이 등 봄을 느낄 수 있는 형태와 무늬의 한지 오브제로 변화된 공간을 연출한 게 특징이다.

지난 1일 시작된 기획전에서는 봄을 맞아 △스카프 △브로치 △커피잔 △화병 등 봄에 활용도 높은 다양한 수공예품을 구매하고, 20만원 이상 구매 시 고객에는 한지 오브제가 무료로 증정됐다.

특히, 한지 오브제는 전주 한지업체 천양피앤비(주)가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테리어 디자인 박람회 ‘메종&오브제(Maison&Objet)’에 참가해 한지의 주원료인 다투나무를 주제로 한지의 다양한 패턴을 선보이며 전통문화의 자부심이 담긴 전주한지 수출의 물꼬를 튼 작품이다.

이번에 이벤트로 증정되는 한지 오브제는 셀룰로우스 한지 소재로 제조한 친환경 소재 제품으로 작은 소지품을 넣고 다닐 수



있는 다회용 백이나 한지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김도영 원장은 “이번 기획전은 봄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보낼 수 있는 3월과 4월, 그리고 5월을 타깃으로 한 프로모션”이라며 “기획전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전주한옥마을 나들이를 즐기며 지역의 우수 수공예품도 구입하고, 한지오브제도 얻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모션 기획전 상품은 온라인 쇼핑몰인 명인몰(jshop.or.kr)을 통해서도 구매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누리집(jonjucraft.or.kr)을 참고하거나 공예산업팀(063-281-16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지리산 주천 산수유 꽃 축제 16일 개최

남원시 주천면 용궁마을 산수유 군락지(용궁리 63번지 일원)에서는 오는 16일 제13회 지리산 주천 산수유 꽃 축제가 산수유꽃 풀달걀 걷기, 산수유차 시음, 산수유 가요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함께 열린다.

용궁마을에는 산수유가 색노란 꽃망울을 수줍게 터트리기 시작해 다음 주변 만개하여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148ha에 1만여 그루의 100년 이상 수령을 자랑하는 산수유 나무는 꽃이 크고 빛깔이 곱기로 명성이 자자하다. 산수유 열매는 예로부터 약용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꿀벌의 생리기능 강화로 장기간 복용하면 정력증강, 무기력으로 인한 남성질환, 이명 현상, 원기 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전해진다.

주천면 관계자는 “편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한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문화예술계 현안 논의·문화예술사업 협력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전북예총과 첫 상견례 가져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 6일 한국집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이석규)와 2024년 첫 상견례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상견례에서 재단과 예총은 도내 문화예술계 주요 현안과 동향을 논의하고, 앞으로 추진할 문화예술사업 및 행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이석규 예총 회장과 회장단, 이경운 재단 대표이사과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석규 회장은 “문화예술 예산이 삭감돼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재단과 함께 문화예술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그림을 완성시키겠다”고 전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형식적인 것이 아닌 분과별로 의견도 받고, 도움도 받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기획정책팀(063-230-7410, 7415)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